

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학습 목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할 수 있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부탄'은 산림이 국토의 60%를 밀돌지 않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인 윤택함을 위한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으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또한 노숙자가 없으며, 어려움에 부딪친 이웃을 돌보아 주는 공동체 문화가 있다.

부탄의 행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써 보자.

▶ 부탄의 학생들(상)과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 주민(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

행복한 삶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양하지만, 질 높은 정주 환경과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 실천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여가와 문화생활,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루 갖추어 때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찾아가기 →

78~79쪽에서 오늘날 생활 공간의 변화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학습한다.

질 높은 정주 환경 정주 환경이란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가는 터전을 둘러싼 환경으로, 좁게는 주거 환경에서부터 넓게는 문화, 여가, 자연환경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이다. 대개 질 높은 정주 환경이란 환경이 쾌적하고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¹ 정주 환경은 물리적 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므로 우리의 지각, 태도,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소 혹은 공간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를 담고 있는 저장고로서 인간의 행복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²

삶은 집의 품속에 포근하게 자리 잡고 보호받으면서 시작한다. 집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공간이며, 거친 세상에 내던져지기 전에 인간을 품어 주는 요람이다.

집에 놓인 서랍이나 상자, 혹은 장롱 속에는 그 집에 사는 이들의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그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 있다.

—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오늘날 우리는 집이 지니고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서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집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건 아닐까?




행복한 삶을 위한 질 높은 정주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자료 1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의 이상적 정주 환경


(가) 사람이 살 터로는 첫째로 지리(地理: *풍수 지리적 명당)가 좋아야 하고, 둘째는 생리(生利: 그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 풍부한 산물)가 좋아야 하며, 셋째는 인심(人心: 넉넉하고 좋은 이웃 간의 정)이 좋아야 하며, 넷째로 산수(山水: 빼어난 경치)가 좋아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 이종환, 《택리지》 -

❖ 예부터 명당으로 꼽힌 충청도 가야산 부근



(나)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대중교통의 편리성, 은행이나 병원, 공공시설 등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 공원 및 녹지 면적 비중, 적당한 주택 가격 및 주거 비용, 우수한 교육 여건, 직장과의 인접성 등이 있다. - 설문 조사 기관 M사, 2014. -

❖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



*풍수지리적 명당 우리 민족의 독특한 자연관인 풍수 사상에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입지를 명당으로 꼽았다.

비교 (가)와 (나)에 나타난 이상적 정주 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자료 2 건축가가 들려주는 행복한 공간 이야기

“제가 시골 면사무소 설계를 맡게 되었을 때의 일이지요. 다른 건축가들은 먼저 설계도면을 그렸겠지요? 저는 설계도면을 그리는 대신 먼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묻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필요한 게 없다고 하시던 주민들도 제가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목욕탕’을 지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 동네에 목욕탕이 없어서 농사일로 지친 몸을 욕조에 담그려고 사람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차를 타고 이웃 도시까지 간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홀수 짝수제로 남탕과 여탕이 운영되는 면사무소를 짓게 되었지요.

건축가로서 제가 한 일은 원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요구를 공간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건축은 근사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조직하는 일이니깐요.”

- 《EBS 지식채널e》, 2012. 1. 16. -



▲ 면사무소의 목욕탕

분석 1. 건축가가 면사무소에 목욕탕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적용 2. 내가 건축가라면 우리 지역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건축하고 싶은지 구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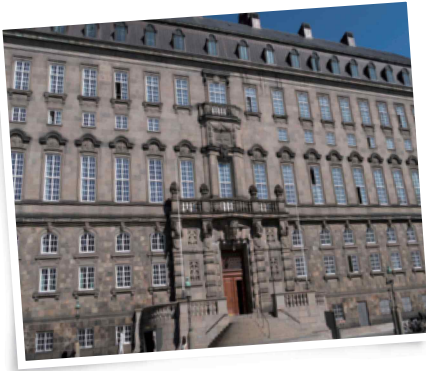


찾아가기 →

192~197쪽에서 사회 불평등 문제와 이를 개선하려는 사회 복지 제도 등을 학습한다.

찾아가기 →

124~125쪽에서 시민 참여와 인권의 보장을 학습한다.



◀ 덴마크의 국회 의사당 덴마크는 특권 의식이 없는 정치인과 부패가 없는 정치 풍토, 정치에 관한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유명하다.

경제적 안정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규모를 확대하여 국가의 부(富)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의 부가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이나 질 높은 의료 및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소득이 높다고 해서 구성원의 삶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경제 성장 덕분에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복지 정책**이 미흡하면 빈부 격차나 지역 격차가 커지고, 소외 계층이 상대적 박탈감 및 빈곤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면,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¹

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념이다. 이에 따라 민주 사회에서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만약 한 사회 내에서 시민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활발하지 않다면, 시민이 자신의 요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워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력 남용이나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려면,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²

자료 더하기 덴마크로부터 배우는 행복의 조건

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여 행복 지수가 높다.

자유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전에 1년간 ‘인생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정한다. 이들은 시험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진로를 탐색하여 선택한다.

안정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준다.

사회 복지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병원 진료비가 평생 무료이며, 교육비도 대학까지 무료이다. 실직해도 정부에서 2년간 예전 월급 수준을 보조해 주고, 구직 활동을 도와준다.

신뢰 세금이 아깝지 않다.

정부와 시민 사이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고(高)세율 정책을 펴고 있다. 덴마크의 고소득자들은 청렴한 정부 운영에 관한 믿음을 바탕으로 월급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평등 남이 부럽지 않다.

어떤 직업을 택하든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기에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한다. 또한 직종 간 임금 격차도 크지 않다.

— 오연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경제적 안정과 민주주의의 실현은 행복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자료 1 '이스털린의 역설'과 그에 대한 반론: 부유한 국가일수록 더 행복할까?

소득이 행복과 관련 있다는 점은 맞지만,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제 이름을 따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 이스털린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가 증대하더라도 국민의 행복 수준이 이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선택할 기회가 많아져 더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고,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은 더 높아집니다.



▲ 스티븐슨(상)과 윌퍼스(하)

- 《사이언스타임즈》, 2010. 12. 27. -

평가 국가의 부가 증가할수록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 무한대로 커질 것인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보자.

자료 2 독재가 국민에게 남긴 것

1986년 A국에서는 21년간 독재를 한 대통령이 시민 혁명으로 대통령 궁에서 쫓겨나 외국 망명길에 올랐다. 그 후 대통령 궁에서는 대통령의 부인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각종 사치품이 발견되었다. 수많은 보석, 수천 켤레의 고가의 구두, 사 놓고는 한 번도 입지 않은 모피 옷을 비롯한 갖가지 의상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 A국의 한 박물관에 전시된 A국 전 대통령 부인의 구두

A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지고, 경제 수준도 높은 국가였다. 그러나 독재 정권하에서 정경 유착,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경제도 점차 어려워졌다. 당시 대통령은 재임 동안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과 언론인을 투옥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100억 달러를 부정하게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A국은 해당 대통령 집권 시 발생한 채무 280억 달러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했으며,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2015년 기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월평균 수입이 23달러 미만인 극빈층이 전체 인구의 35%가량을 차지하며, 고질적인 빈부 격차와 높은 범죄율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 코로넬 외, 《더 뉴스》 -

추론 위 사례를 참고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이 사회 구성원의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자.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찰하는 자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것일까?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면 도덕적으로 행위를 하고 성찰하며 살아가야 한다.

도덕적 삶 |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를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도덕적 사고**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며, **도덕적 감정**은 타인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과 공감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도덕적 사고와 감정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¹

도덕적 성찰 | 잘못된 판단과 순간적인 기분에 이끌려 행동하거나,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찰이란 자신의 언행에 부족함이나 잘못이 없는지 반성하고 살펴서 바로잡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도덕적 성찰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²



도덕적 삶은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료 1 타인을 위할 때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

어느 심리학 실험에서 한 무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전에 행복감을 측정하였다. 그런 후에 각 사람에게 봉투 하나씩을 나눠 주었다. 거기에는 5달러 짜리 혹은 20달러짜리 지폐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실험자는 참가자의 절반에게 “이 돈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시오.”라고 지시하였고, 다른 절반에게는 “이 돈을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시오.”라고 지시하였다.

오후가 되자, 돈을 다 사용하고 실험실로 돌아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다시 한 번 측정하였다.

어떤 사람의 행복이 오전보다 더 증가하였을까?

바로 ‘남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이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남을 위해 5달러를 썼는지, 20달러를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5달러를 쓴 사람도 20달러를 쓴 사람과 같게 행복감이 증가하였다. 나눔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크게 베풀겠다.’라는 생각에도 진정성은 있다. 그러나 적은 액수이지만, 지금 당장 베푸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는 더 현명한 길임을 이 실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 최인철, 《Present》—

성찰 1.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푼 후, 자신이 더욱 행복해진 경험이 있다면 발표해 보자.

적용 2.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직접 실천해 보자.